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1월9일 주일 설교입니다.

<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? >

시편 121:1,2 / 새찬송가 388 (통일 441) 비바람이 칠 때와

1. 사람은 홀로 설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움은 결정적인 것입니다

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(창2:18).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. 그러나 사람의 도움과 달리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도움이면서 ‘반드시 받아야 하는’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.

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인생을 세우는데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주된 것이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서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노력과 애씀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.

믿음의 조상들의 삶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수고와 애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.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, 모세가 다 그렇습니다.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출애굽 할 때나 아말렉과 전투할 때, 광야를 지날 때,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야말로 결정적이었습니다(느9:19-22).

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 온 것이나, 아기 예수를 해하려는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입니다(마2:13-15).

2.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생에서의 특별한 계기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주어집니다

주님은 범사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. 그러므로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(잠3:6).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에도 ‘그들의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(막6:7-10).

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(시68:19), (복음성가 :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가사).

3. 주님의 도우심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

이런 주님의 도우심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매사에 승리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(히4:14-16), (새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3절 가사).

주님의 도우심은 죄인 되고 부족한 우리로써는 감당하지 못하는, 오직 ‘은혜로 주어지는 도우심’입니다. 이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나를 나 되게 한 것이니,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결국 ‘내가 나 된 것’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(고전15:9,10).

4.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임합니다

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에 남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(마6:3,4).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‘도움 받는 우리 자신’조차 그 당시에 알지 못하게 하시는 ‘은밀함’과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. 언제, 어떻게, 어떤 방법으로,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, 왜 나를 도우시는지 그 비밀은 은밀함에 감춰져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.

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모르니 부단히 또 무시로 그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. 다시 말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듯이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아닌 절대적인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(시121:1,2).

< 적용 & 실천 >

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?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? 우리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또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상적 도움이 아니라, 오직 ‘하나님’을 바라고 그 크신 ‘도우심’을 기대해야 합니다!